

# LUXURY

*April 2013*

White Fashion Item 61

인테리어 전문가의 작업실  
7 Makeup Artists+7 Lips

**BOS**  
HUGO BO

## 작품이 된 단추, 우노 초이

금조개 조각, 자개. 그 빛깔이 아름답고 신비로워 수백 년간 '귀한' 재료로 사용돼왔다. 1900년대 앤틱 단추만을 모아 브로치와 브레이슬릿, 가방 등 다양한 작품으로 빚어내는 작가, 우노 초이가 이번에는 자개 단추를 모았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더 브릿지 갤러리에서 <프레스스 버튼 인 마이 프레스스 캐비닛-우노 초이 위드 PS23>전을 여는 그녀를 만났다. 단추 작업의 매력은 무엇인가? 단추는 종류, 크기, 소재, 색 등에서 주얼리보다 훨씬 다양하고 그 양도 방대하다. 작업을 하면서 종종 '귀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물질적 가치를 떠나 얼마만큼의 애정으로 다뤘는가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는 것 같다.



사진 이두경기자

단추는 '매일 여닫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고 하찮은 동그라미를 귀하게 여긴 덕분에 지금은 작가라는 이름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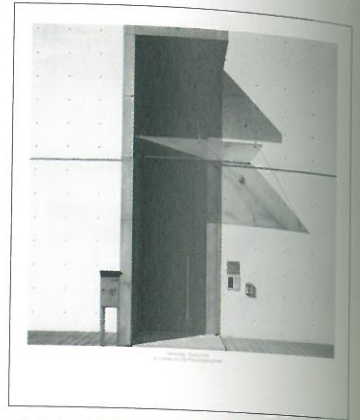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천연 자개 단추만 사용했다. 미국에는 70년 역사의 단추 소사이어티가 있다. 수십 년간 수천 개에 달하는 수제 자개 단추만을 모아온 '케이'라는 할머니를 알게 됐다. 대부분 1920~1930년대 단추로, 적어도 70년이 넘는 유물

들이다. 수천 개의 단추가 빛을 내는데 같은 디자인은 하나도 없었다.

이번 작업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자개 단추는 실용적이지 않다. 자개 단추를 단 옷은 세탁할 때 단추를 모두 떼었다가 옷이 마르면 다시 달아야 한다. 사람도 그렇고 아름다운 것은 원래 까다롭지 않나(웃음). 워낙 재료가 귀하다 보니 본드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비느질해 완성한다. 반면에 이전 작업과 비교하면 자개 단추 자체가 아름다워 작품의 미감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덜하게 되더라. 오히려 너무 아름다운 것들 사이에서 조화를 맞추는 데 고민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문의 512-4432



감동을 새삼 느끼게 될 것. 전시 기간 중 토요일마다 갤러리 마당에서 관람객을 위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의 464-7709



## 황효철 작가가 빚은 순수한 조형미 <구성을 보다>전

여기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맞닿은 골목,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취를 예술적 정물의 대상으로 삼는 건축 사진가가 있다. 건축 사진작가의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온 황효철 작가의 전시가 5월 30일까지 성북동 그린랜드인 블루에서 열린다. 건축 화보도 다큐멘터리도 아닌, 건축과 도시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표현해온 그답게 갤러리 한 쪽 벽면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삼아 숨어 있던 조형미를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이 주는

## 20세기 디자인의 선구자 <장 로이에>전

장 푸르베, 조지 나카시마, 요리스 리르만 등 혁신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가구 디자이너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국제갤러리가 올해의 주인공으로 장 로이에를 초대했다. 실내 건축 디자이너인 그는 화려한 직물과 패턴, 원목, 금속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소재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 실용적이면서도 고전미와 우아함, 유머까지 갖췄다는 평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선보이는 대표작 '북극곰 시리즈 Ours Polaire Series'는 두툽한 소재의 플러시 천에 다양한 굴곡의 곡선을 넣어 기능적이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췄다. '넝쿨 시리즈'라 불리는 조형 '리안 Liane'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전환하던 시기의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표현 양식의 영향을 받은 작품. 넝쿨 혹은 나뭇가지 같은 형태를 섬세하게 연출해 장식적인 면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 실내 건축 디자인의 전형성을 뛰어넘은 20세기 거장을 만나보길. 문의 735-8449

